

Life Care Partner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
함께 동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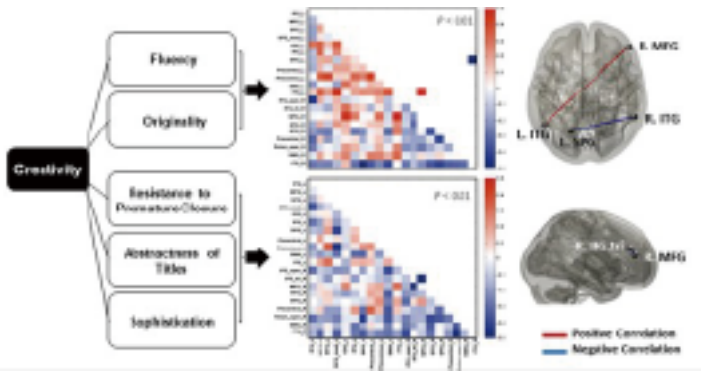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김필건 대한한 의사협회장,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방문

대한한 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 6월 23일 모교인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을 격려차 방문했다.
대한한 의사협회장의 이번 방문은 현재 한 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상호교류 촉진 및 의견을 나누고자 방문하였으며, 정지천 한방병원장과 각 진료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락 오찬을 통해 교원들의 보수교육문제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취임 후 첫 모교 병원방문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며, “앞으로 한 의사협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41대 대한한 의사협회장인 김필건 회장은 본교 출신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한 의사협회를 이끌고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국제 학회 Travel Award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연구초빙교수 함자람)는 창의성에 대한 뇌 기능적 연결성 연구(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figural creativity based on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를 주제로 지난 6월 2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Organization for Human Brain Mapping 학술대회에서 Travel Award를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뇌기능 매핑학회 연차 학술대회

에 제출된 초록 중 심사를 거쳐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함 박사는 신경과 김광기 교수와 교육학과 박선희 교수의 공동 연구 과제인 ‘뇌 기반 창의성 연구(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위의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해당 연구는 창의성이라는 뇌 과학 연구가 미진했던 주제에 대하여 뇌 기능적 연결성을 탐구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으며, 창의성은 치매 진단 및 재활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선행 연구들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는 치매와 창의성 관계에 대한 신경기전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장혈관내과 김지현 교수,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심장혈관내과 김지현 교수는 지난 5일 일산동구 보건소에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강의에서 김 교수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평소 생활습관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강의를 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관리 중 ▲고혈압 제대로 알기 ▲고혈압 합병증과 관련 검사 ▲고혈압의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고혈압에 대한 잘못된 상식으로 고혈압 치료는 ‘완치’의 개념이 아닌, ‘관리’의 개념이며, 혈압약을 복용하다 중단하면 복용 이전과 같이 상승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혈압약 복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혈압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몸의 각 장기에 손상을 일으켜 여러 질환을 유발하므로,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법당, 본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생일 법회 진행

지난 6월 23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법당에서는 본원에서 활동 중인 성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생일 법회를 진행했다.
법당에서 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병원 곳곳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지도법사 덕유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공덕과 복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공덕과 복을 저절로 쌓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환자들을 위해 진실 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자원봉사자는 “법사스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며 축원을 해줘 큰 감동을 받았다.”며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